

한국의 산업위생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카톨릭의대 산업의학연구소장 이 광 목
한국산업위생학회 회장

I. 머리말

오늘 한국산업위생 학회의 설립을 맞이하여 표제와 같은 연제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이러한 일이 이렇게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의 합의된 결집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을 시점으로 한국의 산업위생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산업위생의 목표나 그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겠다고 보지만 다시 한번 그 뜻을 되새겨 앞날을 다짐할까 한다.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산업위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산업장의 근로자들을 그들 작업장의 유해요인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데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 산업위생은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에게 질병을 일으키거나 안녕을 해치거나 불쾌감을 줄지도 모르는 작업장에서 발산되는 여러가지 환경인자를 인식하고 평가하고 대책을 도모하는 과학이고 학문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산업위생의 역사는 돌이켜 볼만한 내용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는 너무 빈약하다. 1945년, 즉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전까지는 공업화 되지 못하였던 것과도 관련이 있었겠으나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몇몇 의학계의 선배들이 단편적인 활동을 하셨던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는 작업환경측정기기조차 없었던 때인지라 산업재해조사 혹은 요즘의 예비조사 정도의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 후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위생 학교실에서 환경위생분야가 대두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거의 모든 산업시설이 폐허화되어 산업위생문제는 멀어지게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때에 대한석탄공사의 장성병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시던 최영태 박사께서 광산의 진폐증을 관리하여야 겠다고 시작하신 것이 우리나라의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문제를 다루게 된 실질적인 시작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1956년경 장성병원내에 작업환경측정기기를 갖춘 중앙실험실이 설치되었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작업환경 측정기관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때 갖추어진 환경측정용기기로는 midget impinger, hopcalite

II. 과 거

를 이용한 CO 분석기, MSA의 가스 검지관, Owens의 분진계, sound level meter,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소형 가스포집기, Kata온도계, Assmann 통풍속도계 등이었고 그밖에 혈액가스 분석기, Flicker tester, Collins timed vitalometer, wet gas meter, Douglas bag, 악력계, 배근력계 등 노동생리연구용 기구들이 있었다. 그때로서는 어느정도 측정기구를 갖추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물론 인력을 구할 수도 없었거니와 당시의 강원도는 교통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후에 이 연구소 발전에 운명조선생계서 많은 기여를 하셨었다.

이 초창기의 모든 학술적 또는 현장의 관리를 추진하는데에 앞장섰던 분은 초대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이셨던 최영태박사님과 현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이시고 가톨릭의대 교수로 계신 조규상교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일이다. 오늘의 산업위생분야를 있게 한 장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산업위생분야가 활발하게 된 계기는 1962년 가톨릭 산업의학연구소가 설립되고 그 이듬해에 당시 보사부의 노정국 후원으로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환경조사 및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이다. 이 때 정부측에서 노정국장 이하 일선 감독관들이 적극 후원하여 주었고 현 노동부 산업보건국장이신 윤국장님도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 이 때에 1963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졸업하고 저를 도와 작업환경측정에 직접 참여하여 주셨던 김문고선생이 생각한다. 이러한 분들이 산업위생을 오늘날과 같이 발전시키는 데에 초창기에 공헌을 한 분들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외에도 백남원교수를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각 대학의 많은 보건대학원 출신 산업위생전문가들의 노고와 이들을 직접 지도하여 주신 정문식 원장님을 비롯한 각 의과대학의 교수님들의 공헌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현재까지 많은 의과대학에 산업의학연구소가 설립

되어 여기에서 많은 산업위생 관계자들이 일을 하여 오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표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산업위생분야의 발전에 그리고 산업위생사의 양성에 큰 공헌을 하여 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일을 하여 오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도 시설이나 장비의 부족이 가장 어려웠던 일이 아니었나 생각하며 또 산업위생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은 시련도 겪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어려웠던 여건이 아쉬움만이 아니라 채찍질도 되었다고 보며 여러분의 지혜를 짜내게도 하였다고 본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좋게도 여긴다.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를 비추어 보았다.

Ⅲ. 현 재

지난날의 산업위생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방향을 잡기에 급급했던, 그리고 준비하던 시절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좀 생각하고 싶은 일이 있다.

1960년대는 산업위생분야의 발전이 비교적 순탄했던 시절이었던 때인 데에 비해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안 때문에 선경제발전이라는 미명을 앞세운 강압정책으로 그 여과가 산업보건분야에까지 미치게 되었던 때이다. 작업환경측정이나 근로자 건강진단의 결과까지도 그 발표가 금지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금지조항은 아니라고 하였지만 발표하기에 앞서 문공부에 발표하겠다는 보고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체는 '불가임'으로 양해해달라는 것이었다. 일간지에 환경문제나 근로자 건강문제가 보도만 되면 온통 세상이 뒤집히는 것같이 소란스러웠었다. 수사선상에 오르는 경우까지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산업보건활동이 위축되었었고 결국은 무관심으로 흐르게 되었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끄집어 내는가 하고 생각하실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갈림길을 어떻게 잡을까 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제 6 공화국의 출범을 한 시점으로 잡아 보았다. 정치적인 시점을 왜 결부시키는가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산업위생문제는 단순히 위생학적 또는 의학적 문제이기애 앞서 사회문제이고 노동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민주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1960년대에는 그래도 제가 소속해 있는 연구소에 작업환경측정에 관해 사업체나 노조의 요청이 자주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6 공화국이 들어설 때까지 단 한건 밖에 그러한 요청이 없었다.

요즘은 근로자들로부터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산업위생활동이 어느정도는 활발하게 되었고 따라서 산업위생학의 발전이 요구되는 사회가 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각 의과대학에 보건대학이 설치되어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인력이 배출되고 있어서 다행한 일이다. 그리고 경제력의 향상으로 연구기자재나 시설, 장비들이 많이 보강되었다. 또 정부의 출자기관으로 산업안전공단과 근로복지공사 산하에 직업병연구소가 설립되어 좋은 연구 장비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산업위생분야의 활동무대가 넓어졌다. 그래서 산업위생사의 직종이 어느정도 확립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다. 또 금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도 되었다. 이제는 산업위생전문가를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일자리가 많아졌다. 즉 안정된 직업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때이겠는가? 산업위생학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켜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학문적 발전 뿐 아니라 조직적 활동이 필요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신빙성과 신뢰성을 높여 근로자 건강향상에 기여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모였다. 아직 우리의 산업위생은 걸음마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라고 생각한다. 좀더 우리의 자질을 높여 신뢰받는 전문가가 되

어야 하겠고 내가 나를 내세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다. 공부하고 발전할 때이다. 그리고 신중해야 할 때이다. 현재 우리의 현실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본다.

IV. 미 래

우리는 미래의 산업위생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또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저의 견해로는 우리가 하여야 할 급한 일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자질을 높이는 일, 직업환경측정법의 표준화 그리고 측정치의 정도관리문제, 각 대학원 및 관련대학의 교과내용과 그 수준 조정, 교재개발 등이 그것이고 연구비의 조성등도 생각해아겠다. 작년에 외국에서 한국에 산업위생학회가 있는가에 대해 문의가 온 적이 있다. 아직 없다고 회답하면서 쓸쓸하고 쓸쓸했다. 30년간 산업위생학을 하여 오면서 학회도 설립하지 못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니 내 자신 너무나도 처량하게 느껴졌었다. 결국 후학들에게 아무 것도 남겨준 것 없이 나에게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모임인 가칭 한국산업위생학회를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학회를 통해서 국내의 회원들간의 학술 및 정보교류는 물론 국제학술단체, 외국학술단체와도 연관을 맺어 국제적 활동에도 힘을 써서 새로운 지식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건강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하겠다.

끝으로 지금까지 본 학회를 창립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는 모든 준비를 하여 주신 백남원 교수와 그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협조가 앞으로도 끊임 없으시리라 생각한다. 이 학회는 여러분의 학회이다. 학회를 발전시킴으로써 산업위생학을 발전시키고 이것이 우리민족의 삶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자.